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09. 10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뷰티 산업 현 좌표	2
1. 뷰티 산업 현황	2
2. 뷰티 산업의 문제점	5
3. 외국의 산업 진흥 사례	9
III. 뷰티 산업 선진화 방안	10
1. 국내산업기반 재정비	11
2. 관광·수출 상품으로 전략적 육성	17
IV. 기대효과	20
V. 향후 추진계획	21

I. 추진 배경

- ◇ 뷰티산업은 웰빙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
- ◇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내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수출산업으로도 육성

① [성장잠재력] 웰빙·감성소비 등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신성장 산업

- '07년 매출액은 약 4조 586억원* 규모로 최근 3년간 19% 성장

* 헤어미용 3조 5,386억원, 피부 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기타 : 1,002억원 ('07년, 통계청)

-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07년 한국방문 일본 관광객 21.2%가 미용 서비스 이용(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높은 성장 전망 등으로 대학 등 관련학과 개설도 활성화

* 고등학교 22개, 대학 98개, 대학교 25개 등 202개교('09년 보건사회연구원)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여성 종사자 비율 : 미용 80%, 피부미용 93%('07년, 보건산업진흥원)

② [체계적 산업 육성 미비] 세탁, 목욕장 등과 함께 “공중위생 영업”으로 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방향 제시 부재

- 시장 규모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해외브랜드에 비해 경쟁력 미흡

* 자크 데상쥬(23개소) 등 17개 이상의 해외브랜드 국내 진출('07년, 보건산업진흥원)

Ⅱ. 뷰티 산업 현 좌표

1 뷰티 산업 현황

(1) 뷰티산업 개요

① 개념 및 범위

- (개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범위) 헤어미용 · 피부미용 · 네일아트 · 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그와 관련된 미용기기 · 용품 등 제조업 포괄

* 화장품, 성형, 패션 · 의류, 스파 등(광의의 뷰티산업) 이미 제도 개선 중이거나 발전 방안 모색중인 분야 제외

<뷰티 산업 현황>



부분은 별도 자격체계가 없는 부분

② 뷰티서비스 자격 체계

- 미용(종합), 미용(일반), 미용(피부) 등 3종 ('08년 이전까지는 1종(미용))

* 면허 종류는 종전 1종 ⇨ 3종('08년부터)으로 변경,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은 별도 자격없이 미용(종합, 일반) 면허 소지자만 영업 가능

○ 면허(복지부)와 자격(노동부)이 분리된 이중적 구조

-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등 졸업자 : 무시험, 미용(종합) 면허 부여
- 국가 기술 자격시험 합격자 : 자격시험 종류에 따라 미용(일반), 미용(피부) 등 개별 자격증 부여

* 사업장 개설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교환 필요

[2] 뷰티산업 현황

[1] [취약한 영세산업] 영세 자영업 위주,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은 취약

○ 사업체의 97%이상이 4인 이하 영세기업('07년 통계청)

<산업 규모별 기업 분포 현황(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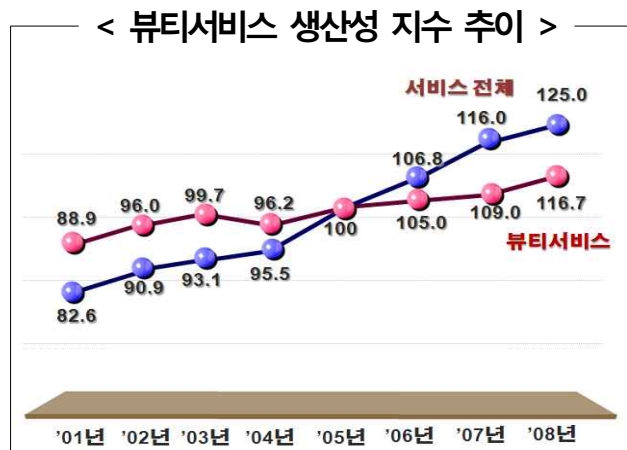
구분	영세기업 (1-4인)	소기업 (5-9인)	중기업 (10-49인)	대기업 (50인 이상)	소계
뷰티서비스	102,525(97.39%)	2,193(2.08%)	643(0.61%)	7(0.006%)	105,269
서비스 전체	664,306(79.8%)	85,073(10.2%)	74,934(9.0%)	8,027(1.0%)	832,340

* '07년 서비스업 총조사, 통계청

○ 노동생산성도 낮고 생산성 증가도 정체

* 노동 생산성의 경우, 1인당 매출액은 22백만원으로 서비스산업 평균 134백만원의 1/6에 불과('05년 통계청)

* 서비스 생산지수의 경우, 뷰티서비스는 116.7로 서비스 전체 평균 125에 미달('08년 통계청)



② **[산업내 양극화 심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규모화·대형화가 진행되고 미용 프랜차이즈가 확대되면서 규모별 격차 확대

- 전체 미용실 81천여개중 미용 프랜차이즈는 1.3%에 불과하나 시장 점유율은 24%를 차지('06년 M&C 리서치)
- 연매출 1억미만 사업체당 영업 이익은 16백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57백만원)의 1/4에 불과한 수준
 - 반면 연매출 1억 이상 사업체의 경우 178백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의 3배에 달함('05년, 통계청)

③ **[대형브랜드 해외진출]** 일부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증가

- '08년 해외 진출 신규 법인수는 122개, 투자 금액은 2,539만\$ 규모 (KOTRA, 한국수출입은행)

* 주로 중국에 진출, 최근에는 미국·필리핀 등으로 다변화 추세

<주요 뷰티서비스 기업 해외진출현황>

구분	브랜드 명	진출 국가	점포수
헤어미용 (110개소)	이가자 헤어비스	중국, 호주	45개소
	리치	중국	30개소
	박준뷰티랩	중국	15개소
	미랑컬	중국,호주	5개소
	리안헤어	중국,미국	5개소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중국,미국	7개소
	이철헤어커커	중국,필리핀	3개소
피부 미용 (11개소)	이지은 레드클럽	중국	10개소
	미플	중국	1개소
네일아트 (30개소)	세시네일	중국, 미국	12개소
	그라시아	-	18개소

* 협회 자료('08년), 보건산업진흥원('07년), 보건사회연구원('09) 등 자료 참고

2 뷰티 산업의 문제점

- ◇ “공중 위생 대상”으로만 인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확충이나 전후방 지원은 미흡
- ◇ 수출·관광자원으로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개발은 부진

1 [법·제도 측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운영

- 미용기기 분류·관리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로 일부 미용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용에 제한
 - * 의료기기로 분류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경우 형벌(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50만원), 행정처분(최대 영업장 폐쇄)
- 국민건강과 직접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도 과도한 처벌 부과
 - 면허증, 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단순 영업 질서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이중 부과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 불이행시 영업장 폐쇄 등
 - 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등 영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의무 미준수시 벌금·징역형 등 형벌 부과
 -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위생안전 위주의 형식적 평가 제도 운영, 교육 시스템 정비 미비 등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합리한 제도 존재
 - * 피부미용 학원이 헤어 미용 장비(예 : 헤어 드라이어기)를 갖추어야 개설 가능

② **[정책지원 시스템]** 창업은 용이한 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 미비로 산업의 영세화·양극화 유발

- 그간 뷰티서비스는 창업시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 정책 지원도 자영업 창업 위주로 진행

<영세 자영업 창업자금·창업지원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한도	'09년 예산(억원)	소관 부처
소상공인 창업및 경영개선자금	5인미만 업체, 창업 및 경영 개선	5천만원	5,000	중소기업청
실업자창업지원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7천만원	100	노동부
저소득층생업자금용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무보증 12백만원 보증 5천만원	72	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330	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용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18세이상 장애인 본인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는 범위내	160	복지부

- 반면 대규모 창업이나 산업의 규모화·고도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은 부재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용자 등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세 자영업자의 규모 확대나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지원체계 미비
 -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더딘 성장
 - 경쟁력 약한 기업은 “실패 → 재창업”의 악순환 지속
- * 미용업소의 50%이상이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 ⇨ 산업의 영세화, 양극화가 심화('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③ **[인력 양성]** 면허(자격) 취득은 용이하나, 국내 자격취득 과정이 글로벌 수준에 미흡하고, 취업·재교육 등 사후관리 시스템도 미비

- 미용 관련 학교 졸업자(연간 약 27천명)의 경우 전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시험 면허 부여**

* 피부미용과정을 이수하고도 헤어 미용을 할 수 있는 면허 부여

- 선진국의 경우 면허 취득 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교육·실습 의무 등 부과하는 등 **면허 취득 요건을 엄격히 규정**

<주요 선진국 미용관련 자격시험 제도 현황>

구분	미용사	피부미용사
한국	응시요건 없음	응시요건 없음
미국 (캘리포니아)	17세이상, 인가한 미용학교에서 1,600시간 교육 이수	600시간 이상 실습 및 기술 교육 이수
일본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2,000시간 교육 이수	미술 기술학교 1년 과정 수료후 1년 현장 실습

-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배출된 인력이 현장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현장에서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면허(자격)소지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도 미비**

- 우수 미용 기술 습득을 위해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외국학교에 유학하는 사례 유발

*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비달사순(영국) : 1인당 3일 기준 700만원 이상 지불

4 [수출·관광 자원화 전략]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전략적 접근 부재

-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써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개발은 부진

* 미용 서비스 이용 관광객은 '05년 12.8% → '08년 6.3%로 감소 추세('09년 한국관광공사)

- 경치·역사적 자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체험·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관광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동남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은 미비

- 해외 진출 기업은 관련 시장 정보 부재, 초기 시장 개척 어려움 등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연

시 사 점

- ◇ 뷰티 산업은 산업 성장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나 지원체계는 미비

- 현 상황 지속시 산업의 영세화·양극화 심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 내재

- ◇ 뷰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전반의 선진화, 글로벌화 필요

① 국내 산업 기반을 재정비 ⇨ 내수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② 뷰티서비스를 관광·수출 상품으로 positioning ⇨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3 외국의 산업진흥 사례

◇ 외국의 경우 뷰티산업을 성장 가능성, 고용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

- 전담 지원 조직 확충, 품질인증 도입 등 제도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영국

- ◆ 스포츠·레저, 관광, 미디어 등과 함께 경제 파급효과가 큰 14개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육성
- HABIA(Hairdressing and Beau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한 one-stop 지원 시스템 확충
 - *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컨설팅, 금융 지원 연계, 신기술 개발 등
- '1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대학교 직업교육 학점 이수 과정에 자격 취득 과정을 신설 추진

중국

- ◆ 부동산, 자동차, 관광, 통신 등과 함께 5대 신흥 산업으로 분류, 상무성을 중심으로 본격 육성 추진
 - * 중국 미용서비스 시장은 '06년 기준 약 26조원(2,200억위안) 규모로 지난 3년간 연평균 32%의 고성장 지속
- 뷰티 서비스에 호텔에 적용하는 스타등급제 도입, 서비스 질 제고
- 영업 준칙 제정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일본

- ◆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정책 지원 시스템 재정비 추진('09년)
 - 융자 제도 확충 등 금융 지원책 강화
 - 업계 경영 지원책 강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 진흥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
- * '09년 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발표 예정

미국

- ◆ 규모화·고도화가 상당히 진전 → 높은 경쟁력 보유
 - * 32만 5천여개의 미용실 중 프랜차이즈 비율이 87% 차지('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액공제 및 직업교육시 보조금 지원 등 추진('08)

Ⅲ. 뷰티 산업 선진화 방안

목표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급산업”으로 육성

정책 방향

패러다임	규제	⇒	산업 육성 중심
정책방향	영세 자영업 창업	⇒	창업후 영업 지원 병행
지원체계	획일적 통제	⇒	시장 중심, 자율 경쟁
주력분야	내수 중심	⇒	내수/수출 병행

정책 과제

① 국내 산업기반 정비(Inbound 전략)

- ①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②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스템 강화
- ③ 질 높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②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Outbound 전략)

- ④ 고수익 관광상품으로의 육성
- ⑤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 활성화

(1)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를 정비

⇒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산업화 촉진

① [미용기기 제도 정비] 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 관리 체계 구축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미용 기기 제도 신설('09년)
 - * 미용 기기 범위, 분류 기준 및 관리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 마련
 - * 일본의 경우 에스테틱 인증제도 등 별도 관리체계 구비
-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용기기를 지정·고시하고 기기 사용 근거 마련
 - (1단계) 현장 수요가 높고 안전 우려가 적은 품목 우선 추진('10년)
 - (2단계) 현장 수요는 있으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 관리 시스템 마련 후 지정 추진('11년이후)
 - * 대상 품목/지정 시기 등은 실태 조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10년)

② [학원 설립기준 현실화] 미용학원 설립기준을 전문 자격별로 세분화

- (현행) 미용(1단계) ⇒ (개선) 종합(헤어/피부)·헤어미용·피부미용(3단계)
 - 기술 자격 세분화에 따른 피부 미용학원 개설 요건 현실화

<현행>

헤어 미용중심
(피부미용학원도 헤어
미용 요건 충족)

⇒

< 개선 >

종합(헤어/피부)
헤어미용
피부 미용

○ '10년까지 “자격별 학원 설립기준 모델” 개발·보급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 조례개정 유도

*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해 시도 조례로 위임

③ [이중제재 정비] 과도한 이중 제재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편의 도모

○ 면허증, 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 영업 질서 위반 :

(현행) 과태료·행정처분 ⇨ (개선) 행정 처분만 부과

* 최근 3년간('06년~'08년) 과태료 부과건수 : 378건

* 관련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1조 및 제22조

○ 대표자 성명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 :

(현행) 징역·벌금 등 형벌 ⇨ (개선) 과태료로 전환

* 관련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폐업신고 의무 위반 :

(현행) 과태료 ⇨ (개선) 과태료 삭제, 세무서 폐업신고 확인으로
직권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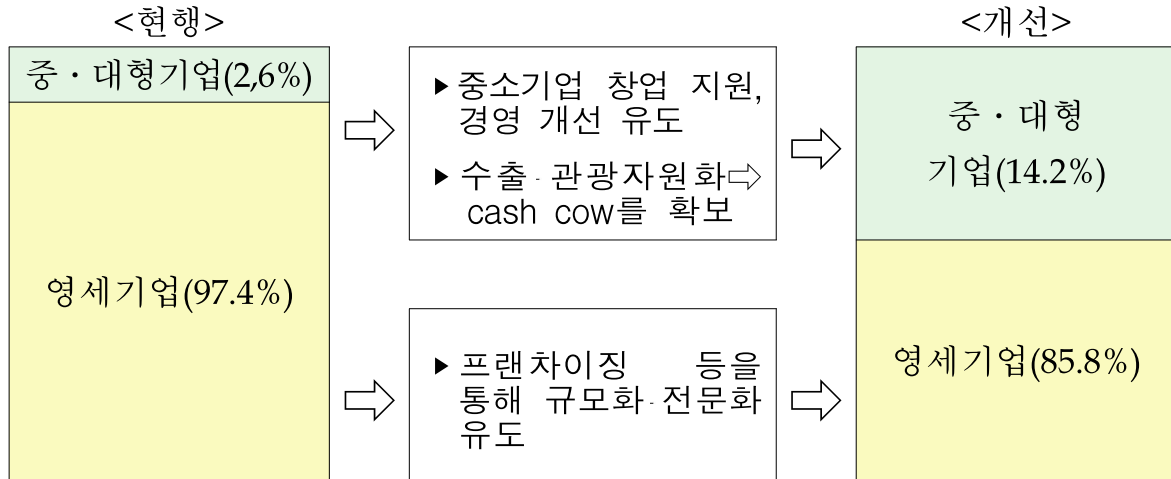
* 관련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2]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산업으로서 규모화·고도화 지원

○ 영세기업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 위주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산업 구조 개선 방향 】



① [산업의 규모화·고도화]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규모화 유도

- (5인 이상 중소기업) 뷰티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중소기업정책자금 : '09년 기준 창업 초기 육성자금(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1조 5천억원), 사업전환 자금(1,475억원),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3천억) 등 약 5.9조원 규모

- (영세기업) 창업 전·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준비없는 창업 → 실패 → 재창업』의 악순환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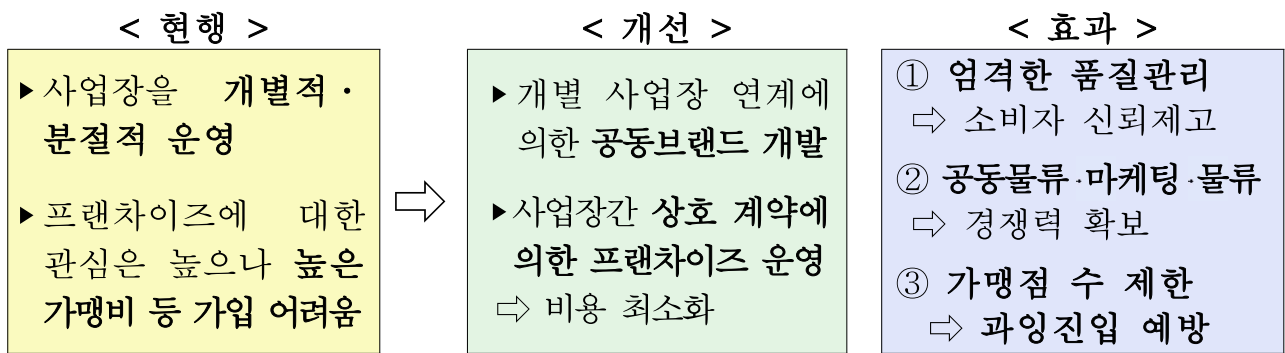
- (창업전) 창업시 경영 능력, 노하우 등을 습득할수 있도록 창업·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업종별로 성공한 기업인을 창업도우미로 활용, 서비스·경영기법 등 전수

- (창업후)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 소규모 개별 영세 사업자간 공동 브랜드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등 프랜차이즈화 유도

* 브랜드 개발, 통합홈페이지 운영, 경영모델 제공 등

*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 과 연계 추진 ('09.9.29 국경위 보고)



② **[우수 기업 발굴·육성]** 서비스·기술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 미용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선정 기준) 위생 수준이외에 서비스 질·직원 친절도·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기업신청에 의한 자율선정 방식)

*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09.12)

- (인센티브 제공)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인증 로고 부여, 위생지도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정 결과 공개, 기업간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③ **[인프라 확충]** 뷰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뷰티산업 선진화센터” 설치 추진

- 창업·영업활동 지원, 시장 조사·분석, R&D 투자, 외부자본 유치, 해외진출, 해외 관광객 유치·연계 등 지원
- 관계부처(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지자체·기업·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④ **[제조업-서비스간 연계·육성]** 화장품, 미용품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 동반 성장 촉진

- 고품질 미용 용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R&D투자 확대(‘10년, 6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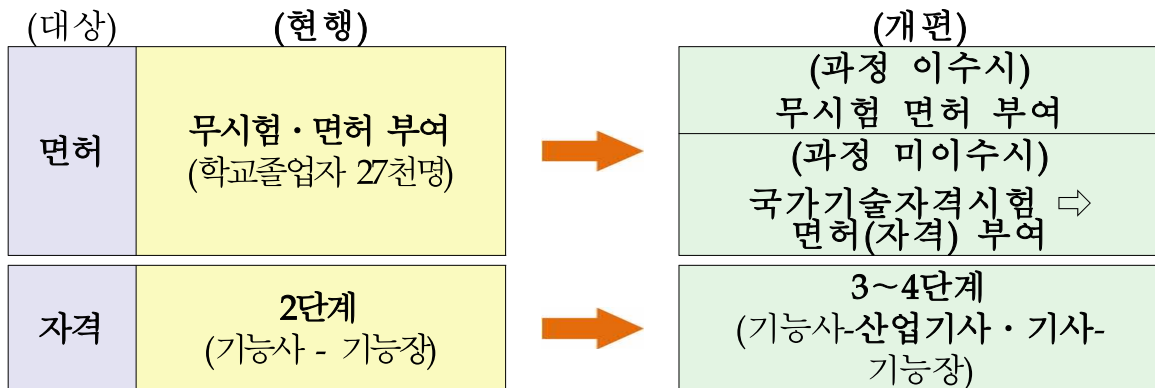
- 매니큐어, 인조 손톱, 피부미용관련 전문화장품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재료·용품 등의 산업 지원
 - * 피부미용제품 70%, 네일아트 제품 67%를 해외 수입에 의존('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방, 두피관리 등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 * 한방화장품과 한국 고유 피부미용서비스, 탈모방지샴푸와 두피관리서비스 결합 등
- 서비스-제조업 등 관련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가칭) 뷰티산업발전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부처간 정책·조정 연계, 현장애로 발굴·해결 등 지원

[3] 질높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 ◇ 면허 취득 요건 강화, 자격단계 세분화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 ◇ 양성된 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창업후 지속적인 재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정비

- ① **[면허·자격제도 개편]** 면허 취득요건 강화, 자격 단계 세분화 등 면허·자격 제도를 개편하여 수준 높은 인력 양성 기반 확충
 -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필수과목, 실습시간 등) 마련('10년)하는 등 취득요건 강화
 - * 현재 관련법 개정 추진 중('09.8.7 국회제출)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관련 면허(무시험) 부여
 -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11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검토
 - 현행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의 자격단계에 기사-산업 기사 등을 신설, “3~4단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자격단계 세분화 추진

<면허·자격체계 개편(안)>



- 자격 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부처(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및 민간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자격제도 개선 TF』 구성·운영

② [취업지원 강화] 면허·기술자격 취득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인난(업계)을 해소하고 구직 어려움(취업자 및 재취업자) 완화

-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를 구축, 전문인력별 면허·자격 취득 현황, 재교육 및 경력 등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정보 제공
- 취업박람회, 인력 장터 등을 개설하여 구직자와 기업간 인력매칭 강화

③ [전문인력 재교육 활성화] 전문 교육 기관 양성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학·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교육 기관을 육성하여 “아시아권 국가의 교육 hub”로써의 위상 정립
 - * 일본 『야미노 미용전문학교』, 영국 『비달사순』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인력 재교육을 수출 상품으로 전략화
- 경영자와 우수 종사자를 위한 『뷰티서비스 아카데미』 강좌 개설
 - ▶ CEO 양성 프로젝트 : 예비창업자, 여성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경영·회계·세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교육
 - ▶ 신기능인 100 프로젝트 : 매년 기술이나 창의성이 뛰어난 현장 종사자 100명을 선발,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상시교육 : 기술·창업·경영 등 전반에 대한 e-learning 시스템 구축

(1)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

- ◇ 글로벌 홍보 강화를 통한 Korea Beauty 이미지 제고
- ◇ 명품관광 콘텐츠 개발,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뷰티 서비스를 매력있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

① [글로벌 홍보] Korea Beauty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글로벌 홍보 강화

- Korea Beauty 브랜드(BI, Brand Identity)를 개발·홍보
 - 브랜드 디자인, 로고, 슬로건 등을 개발하여 간판 등에 활용
- 뷰티관련 세계 대회, 박람회 등 유치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 '11년 피부미용 CIDESCO(한국), OMC Hair World 2014('10.11 개최지 결정)
- 뷰티서비스 종합정보포털 오픈, 외국어 서비스(영·중·일) 제공
 - 기술·인력·제도 등 뷰티서비스 현황, 뷰티 관광 정보, 우수 뷰티 서비스 기업 정보, 교육 기관·제도 등

② [관광 콘텐츠 발굴] 한국 고유의 장점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 뷰티서비스 명장 등을 활용한 “명품 관광 패키지” 개발
 - * 산업계 및 관광업계, 관계부처 등 협의체 구성 ⇨ 관련 상품 개발
-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뷰티테마파크”를 교육·연구·체험 등이 결합된 뷰티 관광 명소로 육성
 - * 프랑스(Herboretum), 일본(기업문화전시회)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업 주도로 뷰티 체험관을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
- 음식, 성형, 스파·휴식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화를 촉진하여 건강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

[2]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 “뷰티관광 선도 기업” 선정·육성

- (선정 기준) 기업 의지·역량, 시설·인력 수준 등 종합적 고려
 - * '10년 중 실태 조사 실시, 선정 기준 등 마련, '11년 이후 본격 선정 추진
- (인센티브 제공) 공항·호텔·여행사 등 대상 가이드북 제작·배포,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 지원**
 -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 종업원 대상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2]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

[1] [해외투자 활성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북경, 뉴욕, 싱가포르 등)의 지원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 (현행)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화장품 ⇨ (확대) 뷰티서비스 등 포함
 - KOTRA, 국제의료마케팅 전문가, 서비스 기업 지원 센터('09.5 북경·상해) 등과 연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
 - * (국제의료마케팅 전문가) '09년 러시아, 미국(서부) ⇨ '10년 동남아, 중국 ⇨ '11년 몽골, 중동 ⇨ '12년 유럽, 미국(동부) 등
 - 해외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간 정보공유, 기업애로해소 창구 등으로 활용('09년)
-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 유망시장 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강화

- 해외 진출 매뉴얼 작성·보급,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 시장 분석 및 Knowhow 전수,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단 파견, 각종 수출 지원펀드 등과 연계한 금융 지원 등

② **[전문인력 해외진출 여건 조성]** 국내 자격 국제적 인증 추진, 해외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뷰티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확대

○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일본,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면허)상호 인증 추진('12년 이후)

- 해외 자격공인협회 등을 활용한 상호 자격 인증서 발급, 국가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체결 등

-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상호주의 원칙 강화('09.9.30 국회제출)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에 의해 외국에서 상호 인증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 자격취득자의 국내 통용 인정

⇒ (개선)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 삭제, 외국에서 상호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통용 인정

○ 해외 진출 희망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취업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희망자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09년 뷰티서비스 분야 300여명을 선발, 해외 연수 등 지원 예정

* 필요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

- 대상국별 고용동향, 자격·비자 등 각종 제도, 구인 현황 등 각종 취업정보 수집·제공(소식지 발간, e-mail 등을 통한 1:1정보 제공)

- 화장품 기업·해외진출 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 기업 수요에 따른 “상시 matching 시스템” 운영

* 해외진출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인력 pool” 확보 및 관련 DB 구축

* 일부 기업의 경우 피부미용사와 연계, 중국시장 동반 진출 ⇒ 화장품 및 서비스 매출 동반 상승 효과

IV. 기대 효과

① 뷰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화장품, 관광, 의료 등 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민·여성의 경제활동 안정에 기여

<뷰티서비스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추계>



* 시장규모: 현 성장 추세('05~'07년 : 19%성장) 유지 가정

* 생산유발효과 1,000억원당 1,84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0억원당 920억원 가정('08년, 한국은행)

- 산업 구조의 영세화·양극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등에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②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뷰티서비스 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비전과 방향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합리화,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을 최소화

③ 서비스품질 평가, 전문인력 교육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

V. 향후 추진 계획

① **[기본 방향]** 협의체 구성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과제 및 처벌 조항 개선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는 연내 완료 추진(국회 제출 등)

- 프랜차이즈 육성, 관광·수출 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10년부터 본격 추진하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11년 이후 완료 목표

* 미용기기 품목 지정·고시, 면허·자격 제도 개편 등

- 제도 개선, 시스템 확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지속 발굴·개선 추진

② 세부 추진 계획

구분	추진과제	조치 사항	주관부서 (협조)	일정
(1) 법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완화				
①	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구축	법 개정 품목고시	복지부 (식약청)	'09.12 '11~
②	학원설립기준 현실화	조례개정	복지부 (교육부)	'10.12
③	과도한 이중 제재 정비	법개정	복지부	'09.12
(2) 뷰티산업 정책지원 시스템 강화				
④	프랜차이즈 육성 등 산업의 규모화 고도화	-	복지부 (중기청)	'10~
⑤	우수 미용 서비스 기업 발굴 육성	-	복지부	'10~
⑥	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	복지부	'11~
⑦	제조업-서비스 연계 육성	-	복지부	'10~

(3) 질 높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⑧	면허자격제도 개편	법개정	복지부 (노동부)	'11~
⑨	취업지원강화(전문 인력 DB 구축)	-	복지부 (노동부)	'11~
⑩	전문 인력 재교육 활성화	-	복지부	'10~
(4) 고수익 관광 상품 육성				
⑪	뷰티산업 글로벌 홍보	-	복지부	'10~
⑫	관광컨텐츠 발굴	-	복지부	'10~
⑬	관광 선도기업 육성	-	복지부 (문광부)	'10~
(5) 뷰티서비스 기업 · 인력 해외 진출 확대				
⑭	해외투자활성화		복지부	'10~
⑮	전문 인력 해외진출 확대	-	복지부 (노동부)	'10~